제22대 국회 입성 불자의원 '36명+α'

4월 10일 총선 결과 살펴보니
국힘18 · 민주16 · 새미1명 당선
조국 등 비례대표서 2명 배출
21대 정각회원 24명 재선 성공

김내영 · 이민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불자 당선인 최소 36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불교〉가 국회 정각회 명단 등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분석한 결과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33명의 불자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례대표 46석에서는 2명이 불자 당선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구 초선의원과 비례대표들 가운데는 종교를 드러내지 않은 당선자가 많아 제22대 국회 정각회 구성 이후 정확한 불자 의원수가 정리될 전망이다.

불자 당선자를 정당별로 구분하면 국민의힘이 18명(전원 지역구)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6명(지역구15·비례대표1), 새로운미래 1명(지역구), 조국혁신당 1명(비례대표) 순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



추미애
(경기 하남시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경기 화성시병)
김병주 (경기 남양주시을)
김영배 (서울 성북구갑)
문진석 (충남 천안시갑)
민병덕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서영교 (서울 중랑구갑)
안규백 (서울 동대문구갑)
어기구 (충남 당진시)
윤건영 (서울 구로구을)
이개호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군)
이수진 (경기 성남시중원구)
이정문 (충남 천안시병)
임호선 (충북 증평 · 진천 · 음성군)
전용기 (경기 화성시정)
백승아 (비례대표)
이상 16명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국민의힘
김석기 (경북 경주시)
김선교 (경기여주시양평군)
김형동 (경북 안동시예천군)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김태호 (경남 양산시을)
박성민 (울산 중구)
박성훈 (부산 북구을)
백종헌 (부산 금정구)
송언석 (경북 김천시)
신성범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군)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이만희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종배 (충북 충주시)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임이자 (경북 상주 · 문경시)
정동만 (부산 기장군)
정점식 (경남 통영시고성군)
이상 18명



김종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새로운미래



조국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 여야 48명 중 30명이 출마해 24명이 당선됐다.

175석으로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불자는 추미애(경기 하남시갑) 당선인이 손꼽힌다. 추미애 당선인은 같은 불자 후보인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6선 고지에 올랐다. 추 당선인은 현재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전통문화특위에서 활동하며 불교 전통문화 보존 관리를 위해 힘쓴 서영교(서울 중랑구갑)·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당선인 역시 재선에 성공한 여성 불자 국회의원이다.

국회 정각회 야당 수석간사이자 민주당 전통문화불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당선인도 신심 깊은 불자다.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은 전통사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사찰 규제해소 개정안'을 발의한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당선인과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당선인도 재선했다.

64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남도청공무원불자회장을 8년간 역임한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4선 의원이 됐다. 제3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역임한 권칠승(경기 화성시병)·어기구(충남 당진시) 당선인은 각각 3선에 성공했다. 불자로 알려진 백승아 당선인은 비례대표로 합류한다.

이 밖에도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전용기(경기 화성시정),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후보가 당선됐다.

10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대표 불자 정치인은 단연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당선인이다. 불심 깊은 가정에서 성장해 어려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20·21대 국회 하반기 정각회장을 맡아 불교계와 국회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202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불교 관련 규제 법령 해결에도 앞장섰다. 2004년 대구 수성을에서 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22대까지 내리 6선에 성공했다.

정각회 수석부회장이자 2013년 천태종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역임한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당선인은 19·20·21대에 이어 4선으로 지역의 선택을 받았다. 국회보좌진 시절 불자 모임인 '법우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에 취임한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당선인도 재선이 확정됐다. 김석기(경북 경주시) 당선인은 어머니 영향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고 20·21대 국회 정각회원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을 이끌기도 했다.

양평군수를 3차례나 지낸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당선인은 지역 사찰과 교류가 넓은 불자로 알려졌다. 2016년 지역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에게 감사패를 받은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당선인도 4선에 안착했다.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이종배(충북 충주시),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불자 당선인도 22대 국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김종민(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당선인은 류제화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당선인도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두 의원 모두 신심 깊은 불자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조계종 사노위 5기 출범…위원장 지몽 스님

4월 11일 위원 31명 위촉
신규위원에 지철 스님 합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5기에 위촉된 승 · 재가 위원들.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 연대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제5기를 출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5기 사노위 위촉식을 열고 승가위원 25명과 재가위원 6명, 총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5명의 승가위원 중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당연직으로 합류하며 4기 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고금 스님, 혜도 스님, 혜문 스님, 시경 스님 등 기존 위원들이 재위촉됐다. 신규 위원으로는 지철 스님(월정사 사회국장)이 참여했다. 재가위원으로는 권승복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등 6명이 재위촉됐다.

진우 스님은 "사노위는 2012년 출범해 노동, 인권, 빈곤, 장애, 성소수자, 사회적 참사 희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 부처님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라며 "쌍용자동차, KTX 여승무원, 산재 사망 노동자, 이주노동자, 발달중증장애인, 차별금지법, 송파세모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이들을 함께 위로하고 도운 사노위의 행동이 바로 자리이타고 보살행"이라고 치하했다. 스님은 또한 "이러한 행동들이 사회에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전법과 포교로 이어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포교를 펼치는 사노위 위원들에게 종단을 대표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사노위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종단과 사부대중의 지원 및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무소의 뿔처럼 실천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위촉식이 끝난 후 조계종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5기 위원장에 지몽 스님, 수석부위원장에 고금 스님, 신규 부위원장에 시경 스님이 선출됐다.

5기 사노위는 4월 13일 팽목항 세월호 10주기 해상 추모재를 시작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이민우 기자

6대 총림 실사, 4월 29일부터 9일간

교육기관 비롯해 인사 · 직제 · 재정 등 현황조사

조계종 6대 총림의 현황을 파악할 총림 실사가 오는 4월 29일부터 9일간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재안 스님)는 4월 1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총림 실사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실사는 동화사·해인사, 범어사·통도사, 송광사·수덕사를 권역별로 묶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총림마다 주요 행사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총림과 일정을 협의해 실사하기로 했다.

총림특위는 회의에서 교육원이 파악한 전국 13개 강원의 운영현황을 확인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6대 총림을 포함한 9개 사미 강원 중 기준인원 20명을 충족한 곳은 통도사와 해인사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사미니 강원 4곳 중에서는 운문사와 봉녕사만 기준을 충족했다.

총림특위는 이 같은 기본교육기관 현황뿐만 아니라 총림의 인사문제와 직제, 예산집행 내역, 방장 및 유나·수좌 유무 등 총림운영에 포함되는 사항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총림 방장의 권한 남용사례도 총림 구성원들의 제보를 받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설암 스님은 "총림의 자격요건 충족 이유가 특정 방장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선 안 된다"며 "여러 총림 구성원들의 제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재안 스님은 "기본교육기관의 충족 여부는 총림 자격요건 중 하나일 뿐 실사의 핵심은 총림의 실질적인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